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❸ 주사행(朱士行)



▶ 한줄 요약
중국인 최초로 대계를 받은 주사행의 노력으로 반야부 경전이 유행하게 되고 이후로 많은 이들에 의해 반야부 경전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었다.

중국인 최초 대계 받고 반야부 경전 유행시켜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은 경전에 대한 번역에서 시작됐다. 불교가 지닌 사상을 중국에 전달하려면 무엇보다 불경(佛經)에 대한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동한(東漢) 말 서역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당시 수도인 낙양(洛陽)에 들어와 대승과 소승의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사업에 수많은 서역 출신 거사들과 중국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식국(安息國) 출신 안현(安玄)이다.

초기 역경 상황을 알려주는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따르면, 거사는 영제(靈帝, 159~189)시기에 무역을 위해 낙양에 도착했지만, 우연히 불교를 접하고 그 가르침에 매료돼 경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고, 수계(受戒)까지 받았다. 그 후에 안현은 장사도 포기하고 서역 스님들과 불법을 논하기를 즐겼으며, 적극적으로 역경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혜교(慧皎)의 〈고승전〉에 실린 그의 전기에서는 "안현은 사문(沙門) 엄불조(嚴佛調)와 함께 〈법경경(法鏡經)〉을 번역했다. 안현은 입으로 범문(梵文)을 번역하고, 엄불조가 붓으로 받아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보자면, 기록상으로 엄불조가 중국인으로서 최초의 출가 승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수계법이 중국에 전래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엄불조는 정식으로 수계를 받지 않은 스스로 출가한 '사도(私度)'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에 엄불조 이외에 많은 중국인들이 스스로 삭발을 하고 출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고승전〉 권1에 실린 담가가라(曇柯迦羅)의 전기에는 "당시 위(魏)에는 비록 불법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도풍(道風)이 그릇되게 바뀌어졌으며, 여러 승려들이 아직 귀계(歸戒)를 받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깎은 것이 세속과 다를 뿐이었다. 설령 재참(齋懺)을 하더라도 그 행하는 법은 (유교의 의식인) 사사(祠祀)를 본받았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조위(曹魏) 시기에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출가를 하였지만, 그들은 엄불조와 마찬가지로 '사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불조통기(佛祖統紀)〉 권15에서는 "중평(中平) 5년(188), 청신사(淸信士) 엄불조가 〈유마경(維摩經)〉 등을 번역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로부터 엄불조를 출가승려가 아니라 '청신사'인 거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한의 불교를 통한 새로운 통치이념의 건립은 황건적의 반란으로 결국 실패하고, 위(魏)·촉(蜀)·오(吳)의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삼국으로 분열한 이후 삼국에서는 새로운 통치이념을 위하여 모두 불교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특히 손오(孫吳)에서는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에서 강승회(康僧會), 지겸(支謙), 축율염(竺律炎) 등을 초빙하여 본격적인 역경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손오의 역경은 상당히 정교하여 후대에 '오역(吳譯)'으로 칭해진다. 그러나 관중(關中)과 중원(中原)을 차지한 조위는 손오와 같이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다. 양한(兩漢)의 핵심세력들은 모두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에 운집하고 있었고, 그들의 사상적 배경은 무제의 '독존유술(獨尊儒術)'을 채택한 이래로 모두 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르러 '반야'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가 유행했다. 사진은 〈대반야경〉 일부.

조위의 기반을 다진 조조(曹操)를 비롯하여 조씨 일가들이 모두 불교를 숭상하였다는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칭제건원을 한 조조의 아들인 문제(文帝) 조비(曹丕)의 동생인 진사왕(陳思王) 조식(曹植)이 매일 불경을 독송하였으며, 〈변도론(辨道論)〉(〈광홍명집(廣弘明集)〉 권5를 찬술하기도 한다. 조조의 정책 가운데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건안(建安) 15년(210)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실시한 '구현령(求賢令)'이다. '구현령'은 출신 신분 등에 상관없이 재능만 있다면 관직을 준다는 것으로, 당시 관직이 모두 세습되었던 관례에 비춘다면 상당이 파격적이다. 이러한 배후에는 바로 불교에서 강조하는 '사성평등(四姓平等)'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더욱이 조조의 사후 칭제건원을 한 조비는 '구품중정제(九品中正制)'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도 신분보다는 '재능'을 중시하여 관직을 주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로부터 이른바 '재성지변(才性之辯)'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논의가 바로 '청담(淸淡)'이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보자면, 새로운 국가를 위하여 기존의 권문세족들을 모두 교체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지만, 이로부터 점차 새로운 통치이념을 세우고자 하는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출가 후 오로지 경전연구에 매진해**
> **지루가참의 〈도행반야경〉 연구강의**
> **우전국서 범서 정본 90章을 구해와**

실제로 이러한 '청담'으로부터 조조의 양아들인 하안(何晏)과 왕필(王弼)이 '현학(玄學)'을 제창하는데, 현학의 목적은 바로 새롭게 출현한 왕조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한편,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현학은 바로 유가(儒家)의 강상명교(綱常名敎)와 도가(道家)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유(有)'의 세계를 추구하는 유가와 '무(無)'를 추구하는 도가의 사상을 결합시키는 것은 중국의 전통사상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보였는데, 이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반야(般若)의 논리라고 하겠다. 이를 모두 논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하안과 왕필 등의 현학가들은 지루가참과 지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과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을 토대로 유가와 도가의 사상을 새롭게 융섭시키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겠으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현학'이 제시되자 당시 중국불교의 흐름은 점차 바뀌게 된다. 동한의 초전불교에서는 안세고(安世高) 계통의 '선수학(禪數學)'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반야'를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조위에서는 현학의 흥기와 더불어 불교가 점차 유행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중국인으로서 정식으로 수계를 받은 승려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위시기에 계율이 번역되는 과정을 〈불조통기〉 권35은 "가평(嘉平) 2년(250), 중천축(中天竺)의 삼장 담마가라(曇摩迦羅)는 낙양에 이르러 승기계(僧祇戒)를 번역하고, 대승(大僧)의 갈마수계(羯磨受戒)를 세웠다. 〈중략〉 정원(正元) 원년(254) 한(漢)·위(魏) 이래로 이중(二衆, 比丘·比丘尼)은 오직 삼귀계(三歸戒)를 받을 뿐, 대승(大僧)과 사미(沙彌)의 구별이 없었다. 담마가라는 이에 수계법을 행할 것을 상서(上書)하였고, 안식국(安息國) 사문 담제(曇諦)와 함께 낙양에서 담무덕부(曇無德部)의 〈사분계본(四分戒本)〉과 〈십인수계갈마법(十人受戒羯磨法)〉을 역출(譯出)하였다. 사문인 주사행(朱士行)이 처음으로 계를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에서 최초로 정식으로 대계(大戒)를 받은 이는 바로 주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아직도 최초의 중국인 승려가 엄불조인가 주사행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승려는 엄불조이지만, 그는 '사도'의 성격이고, 정식으로 대계를 받은 것으로는 명확하게 주사행이 최초라고 하겠다.

주사행의 전기는 〈고승전〉, 〈출삼장기집〉, 〈신승전(神僧傳)〉 등 다양한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영천(潁川, 현 河南省 禹州市) 사람으로, 출가한 후로는 오로지 경전의 연구에 힘썼다고 한다. 그는 특히 지루가참이 번역한 〈도행반야경〉을 연구하고, 낙양에서 강의하였는데, 문장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고 투박하여, 대체로 미진함을 깨닫고는 항상 탄식하기를, "이 경은 대승의 요체인데, 번역의 이치를 다하지 못하였다. 맹세코 뜻을 세워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멀리 가서 대본(大本)을 구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감로(甘露) 5년(257)에 옹주(雍州)를 출발하여 서쪽 고비 사막을 지나 우전국(于闐國)에 이르러 범서(梵書)로 된 정본(正本) 90장(章)을 얻었다고 한다. 이때 그가 얻은 반야경은 바로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이며, 주사행의 제자인 불여단(不如檀, '法饒'라는 의미)을 시켜 낙양으로 보냈지만, 그는 계속 서역에서 유행하다가 8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고승전〉에는 우전국의 소승을 배우는 승려들이 국왕에게 청하여 경전을 반출하지 못하게 막자, 주사행이 궁전 앞에 장작을 쌓아 불태우며, "만약 불법이 중국 땅에 유통할 것이라면, 불경은 곧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호명(護命)이 없다면, 어찌하겠는가?"라고 말하고, 경전을 불속에 던지자 불은 곧 꺼지고, 경전은 한 글자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경전을 진류(陳留) 창원(倉垣)의 수남사(水南寺)로 보낼 수 있었다. 주사행이 보낸 경전은 태강(太康) 3년(282)에 낙양에 무사히 전달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원강(元康) 원년(291)에 수남사에서 무라차(無羅叉)와 축숙란(竺叔蘭)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이러한 주사행의 노력으로 이후 반야부 경전이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이후에 백법조(帛法祚), 지효룡(支孝龍), 축법온(竺法溫), 강승연(康僧淵), 축법태(竺法汰), 우법개(于法開) 등 수많은 이들이 반야경을 강의하였고, 또한 반야부에 속한 경전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주사행에게 〈주사행한록(朱士行漢錄)〉의 저술이 있어 비장방(費長房)의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등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주사행의 명칭을 가탁하여 만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인으로서 최초로 대계를 받은 주사행의 행적은 상당히 감동적이다. 그의 구법 열정은 이후의 구법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인이 서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에 따라 서역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진(魏晋)시기에는 반야학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불교가 주류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반야경을 원용한 현학이 시대사조(時代思潮)가 된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주사행의 구법을 통해 반야부 경전이 중국에 전래된 것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靈鷲山雲門寺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 복지 제도와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 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모집대상 _ 2022년 봄 수계예정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편입가능)
모집인원 _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가능)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재학 중 입학금면제·병원비지원·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졸업여행비지원
3)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율주 일진·학장 진광·주지 운산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모집대상 _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대학원 2022년도 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_ ○○명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_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전형방법 _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신함)

특전사항
1) 해외교류 대학·대학원 입학특전 사항 : ① 일본 하나조노 대학·대학원
②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③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2) 학업기간 중 매월 연구비 및 교재지원
3) 각종 장학금 혜택 및 종단 전문 습의사
4) 해외 연수비지원 5)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율주 일진·주지 운산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정기실사 결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화문의 054)372-8800, 054)370-7100 www.unmunsa.or.kr ※제출서류는 운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